

미래를 향한 젊은 예방의학도들의 비전

- 산업보건분야 -

박종태

한림대학교 사회의학교실 산업의학센터

1. 서 론

산업보건의 목적은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유지하는데 있다(ILO/WHO Joint Committe, 1950). 이러한 목적은 의학의 고유 목적이나 예방의학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단지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 차이 및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보건의 대상은 크게 보아 작업자와 작업환경이라 할 수 있다. 즉 작업자의 질병문제, 건강문제, 유해인자에의 노출과 이로 인한 건강영향, 그리고 유해인자의 발생원이 되는 작업환경이 주된 관심사이다.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를 목표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보건사업의 역사는 1963년 이후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198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격동이 있었던 만큼 산업보건분야에서도 진폐증, 중금속 중독, 이황화탄소 중독 사례등 직업병 사건등을 겪으면서 진통과 발전을 거듭하였다 할 수 있다.

2. 위기와 도전

산업보건 사업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으로 구분된다. 의사, 간호사, 위생사 등 각 직능별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직업병이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장우선의 경제정책 하에서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문제로 제기하였고 직업병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 국제 노동환경의 변화, 노동권과 근로자의 알 권리 확대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하에서 산업보건사업의 내용은 질적인 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변화하지 못한 듯하다.

일부 근로자들은 현행 산업보건 서비스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건강진단으로는 난청이나 진폐증 등을 제외한 다른 직업병을 발견하거나 예방하는데 효율적이지 못 할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유기용제 중독사례, 용접작업자의 망간중독 문제등에서 특수건강진단이 제역할을 하지 못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단회적인 작업환경측정으로 는 유해인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정보를 얻는데에 제한이 따름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보건분야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산업보건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여 왔는지, 얼마나 적합한 산업보건서비스를 공급하였는지(적합성), 검사인력이나 장비의 질향상을 위한 노력정도, 기타 관련분야와 협조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3. 바람직한 미래상

산업보건분야에 있어 바람직한 미래상은 바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제반 산업보건사업들이 산업보건의 고유목

적에 합치되는지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나 회사에서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보건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반요인들- 노사의 인식, 보건의료제도, 복지정책 - 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맡은 분야에서 있어 책임과 권한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산업보건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고려하여야 사항들은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적이 있는 산업보건사업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건강진단의 경우, 질병의 발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폭로평가를 위한 목적인지 분명해야 한다. 따라서 검진을 받은 결과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이어지던가, 혹은 유해인자에 의한 폭로를 줄이려는 후속조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의있는 건강진단이 될 것이다. 또한 작업환경측정도 지속적인 유해요인에 대한 감시와 폭로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의한 실질적인 환경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산업보건 정보체계 구축

직업성 질환에 대한 감시체계(disease surveillance), 폭로감시체계(exposure surveillance)와 아울러 산업보건에 관련된 각종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망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책적인 결정이나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직업성 질환의 유병율, 발생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다. 총괄보건관리 능력의 함양

산업보건 사업은 협의의 직업병뿐만 아니라 각종 직업관련성 질환 및 일반 질환의 예방, 나아가서는 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질병예방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활동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직업성 질환은 물론 일반질환에 대한 관리능력, 치료능력까지도 갖추어야 한다. 산업의학전문과의 전문성은 각종 직업성 및 비직업성 질환, 응급처치 등 진료서비스분야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라. 위해요인의 확인 평가, 저농도 만성폭로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 강화

직장에서의 건강유해 요인에 의한 위험의 확인과 평가, 특히 과거와는 달리 저농도 만성폭로가 문제가 되는 현시점에서는 불현성 단계(subclinical stage)에서의 조기진단에 관한 연구, 직업성 암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사전예방 가능하거나 고전적인 폭로에 의한 직업성 질환보다는 스트레스, 부적절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직업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마. 보건예방 서비스의 확대

현재 산업보건기관들은 직업성 질환에 관련된 건강진단뿐 아니라, 일반인이나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또는 성인병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삶의 질에 대한 의식이 고양될수록 건강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예방적 진료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예방의학분야에서는 임상예방의학(clinical preventive medicine)의 개념을 이미 소개한 바 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실현방안으로 산업보건기관을 통한 보건예방 서비스의 확대를 논의할 때이다.

앞에서 산업보건 분야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몇가지를 나열

해 보았다. 이미 여러 산업보건가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는 산업보건분야의 주요 당면과제, 미래과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업보건의 전문성 확보와 미래는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보건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정확한 감시체계와 정보망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도 전문적인 질병 및 환경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예방뿐 아니라 건강증진, 그리고 일부 치료영역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연구나 활동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